

회원사 소식

(주)금성사

팩시밀리 독일통신규격 획득

금성사(대표 **李헌조**)는 자사 팩시밀리에 대해 독일 통신규격(ZZF) 및 안전규격(TUV)을 획득했다.

이로써 금성사는 지난해 영국의 BABT 및 BSI규격획득과 함께 유럽내 주요규격을 모두 인증받아 유럽시장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독일통신규격은 신청후 시험까지 7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인증절차도 까다로워 지금까지 일본업체들만이 규격을 획득해 왔다.

삼성전자(주)

데이콤에 T1 MUX 공급

T1급 다중화장비(T1 MUX)인 삼성전자(대표 **姜진구**)의 SDNS장비가 한국데이터통신의 DLS(디지털전용회선서비스)네트워크용 장비로 공급된다.

한국데이터통신측은 장비의 성능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최근 T1 MUX입찰을 실시, 대우통신이 제안한 미텔랩스 장비 40시스템과 삼성전자의 SDNS장비 15시스템을 최종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총10억여원을 투입, 국내 최초로 자

체개발한 SDNS T1 MUX제품이 삼성그룹 계열사 이외에 공식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1 MUX 국산화 이후 신뢰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삼성전자는 이번 데이터통신공급원 획득을 계기로 T1 MUX를 비롯한 국내 데이터전송장비 시장에서 다소간 경쟁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mm캠코드 유럽 수출

삼성전자(대표 **姜진구**)는 12일 유선리모컨을 채용한 팔(PAL)방식의 다기능 8mm캠코드(모델명 VC805P)를 개발, 수출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시장에 NTSC방식의 캠코드를 수출한데 이어 세계 전자제품수출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을 집중공략키 위해 이 지역 방식인 팔방식의 8mm코드를 개발, EC삼성전자 판매법인 및 거래선을 통해 1차분 6천대를 첫 수출했다.

삼성은 올해말까지 3만4천대를 추가 수출해 총 4만대의 8mm캠코드를 유럽에 수출할 계획이다.

(주)쌍용컴퓨터

CAD·CAE사업 강화

쌍용컴퓨터(대표 **崔병항**)가

CAD·CAM·CAE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쌍용컴퓨터는 최근 이미지 시스템부내에 CAD·CAM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워크스테이션용 CAD·CAM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CAE(컴퓨터지원엔지니어링)분야에 까지 신규 진출했다.

쌍용컴퓨터는 현재 공급중인 EUCLID-IS에 3차원 솔리드 모델링 모듈과 3축 NC 모듈을 추가한 버전 2.2B를 새로 공급하고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 소재 금형업체인 영신공업사를 비롯, 봉주정밀 아시아산업기술·쌍용정공등과의 납품 계약을 마쳤다.

이 회사는 올해말경 버전 2.3신제품을 새로 내놓고 기존의 2개 서브릴러를 5개소로 확대, 올해 이 부문에서 전년대비 두배이상 성장한 4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전자산업(주)

판매관리S/W 개발

현대전자(대표 鄭몽헌)는 최근 신속정확한 판매관리가 가능한 판매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방식의 화면처리, 사용자 취향에 맞는 컬러지원, 독창적인 파일관리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전시 자료보호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료기입과 동시에 자동정리, 집계되므로 재고 및 외상매출매입 파악이 용이하며 암호사용으로 업무의 안전성을 높였다.

한국데이터통신(주)

해저광케이블 추가 확보

한국데이터통신(사장 申윤식)은 금년말 실시예정인 국제전화 상용서비스에 대비, 해저광케이블 2개라인 6백회선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지난달 24일 데이콤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HJK(홍콩-일본-한국) 해저광케이블 2백70회선과 NPC(일본-미국-알래스카) 2백10회선에 HJK 5백10회선, TPC-4(일본-미국) 90회선 등 6백회선의 해저광케이블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부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자체 가입자 정보체계를 구축, 직접과금을 실시하고 국제자동전화 이용자에 대해선 한국통신 가입자정보를 이용해 직접 과금키로 했다.

데이콤은 과금시스템구축을 11월까지 마무리짓고 한국통신의 R-2와의 접속시험을 9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데이콤은 또 오는 8월까지 동기망회선구축 및 시험을 끝내고 10월중에는 일본 KDD社

를 마지막으로 미국·일본·홍콩 등 3개국 7개 해외사업자와의 협정체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국이동통신(주)

자체 전송망 구축키로

한국이동통신은 이동통신의 서비스지역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자체망구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초 한국이동통신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한 서울-부산간 전송망을 비롯해 각 도청소재지간 자체전송망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각 도청과 지방도시간은 마이크로웨이브로 연결, 2000년까지 전국각지를 잇는 자체전송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국이동통신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이동전화망의 경우 내년중 시내전화국과 기지국간을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93년부터 중앙전화국에서 시외전화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지국으로 연결하는 자체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무선호출시스템은 현재 무선호출교환기에서 터미널까지 쓰고 있는 KT전용회선을 자체회선으로 대체하는 한편, 대전을 중심으로 서울·강원·대구·제주·부산·광주·전북 등

8개 지역에 무선호출교환기를 설치하고 자체회선으로 연결해 전국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성정보통신(주)

이더넷시스템 개발

금성정보통신(대표 鄭장호)이 일반전화선을 사용하는 저가형 이더넷시스템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주)에스·티·엠

안내 데스크시스템 개발

에스·티·엠(대표 金영태)이 터치터미널을 이용한 안내데스크시스템을 개발, 자사빌딩에 설치하여 이용에 들어갔다.

에스·티·엠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이 안내데스크시스템

LAN의 일종으로 데이터전송속도가 10Mbps에 달하는 이더넷시스템은 그동안 수입제품이 절대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이번에 금성이 자체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간의 개발기간과 2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이 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던 동축케이블은 물론 일반전화선으로도 사용이 가능 50%이상의 설치

은 방문자가 전화확인을 않고 만나려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 소속부서나 외출여부등을 확인, 접속해준다.

또한 주차관리·사무실 위치 안내·방문자 관리·회의실예약 관리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키보드가 필요없어 사용이 편리하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PC-LAN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노벨·넷웨어 및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등의 LAN운용체제를 지원, 범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LAN보드와 주기억장치간 메모리공유방식을 채용,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금성소프트웨어(주)

한글 유닉스시스템 개발

금성소프트웨어(대표 黃철봉)는 PC에서부터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같은 운영체제 하에서 쓸수 있는 PC용 한글 유닉스시스템(모델명 하나/hx)을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

강력한 네트워킹기능과 2인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 시스템은 386, 486PC에서 한글 한자 및 특수문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국내환경에 적합하고 다양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하나/hx는 공진청에서 제정한 2바이트 완성형한글코드를 채택, 한글단어의 한자자동변환기능, 한자사전기능등 한글처리환경이 뛰어나다.

이밖에 화면분할시스템을 기본으로 VGA보드상에서 그



래픽처리기능을 제공하며 터미널 에뮬레이터상에서의 한글 한자처리도 가능하다.

(주)디지콤

통신기기 직판나서

디지콤(대표 文준화)이 정보통신기기 자체판매에 나선다.

그동안 각종 음성정보시스템과 데이터통신장비 개발에 주력해온 디지콤은 기존의 R & D용역 위주 사업에서 탈피, 영업에도 본격나서기로 하고 자체 판매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콤은 이를 위해 우선 자사 자동무인교환시스템·음성사서함시스템·팩스메일시스템 등 정보통신기기를 취급할 전문판매대리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데 이어 점차 직판영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삼보컴퓨터

EMI시험설비 운용

삼보컴퓨터(대표 金종길)가 국내 PC업체로는 최초로 자체 EMI(전자파장해) 테스트 설비를 갖추고, 7월 부터 운용에 들어간다.

최근 삼보는 지난 3월부터 체신부 전자파장해 검정규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안산 제2공장내에 EMI측정실을 마련했다.

삼보는 총1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을 통해 자사의 모든 컴퓨터 및 통신관련 기기의 EMI측정은 물론 연내에 정부가 인정하는 사실인증기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규격인 FCC의 인증도 획득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업체중 자체 EMI 테스트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종합가전사인 삼성전자·금성사·현대전자 등이며 대우는 최근 대우통신내에 시험실을 건축중에 있다.

한국IBM

SW사업 강화

한국IBM(대표 吳창규)은 향후 국내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그동안 하드웨어판매에 밀려 부진했던 소프트웨어부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IBM은 올해들어 중대형컴퓨터 및 PC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IBM은 PC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용체계 한글화작업에 주력, 호환기에 의해 잠식된 PC시장을 회복할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 중대형기기 도입시 턴키방식으로 제공돼왔

던 시스템엔지니어(SE) 지원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등화해 점차 고급화·유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내

한국정보통신(주)

한국정보통신(주)의 전화번호가 6월1일부터 변경됐다.

대표전화 : (02)786-3333

사 장 실 : (02)785-5557

안 내

효성데이터시스템(주)

효성데이터시스템의 전화번호가 지난 6월1일부터 D·I·D방식으로 변경됐다.

변경전 : 545-7551

변경후 : 5100-150~299

※직통전화와 FAX번호는 변동없음

안 내

본란에서는 회원사 상호간 유기적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업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사, 인사, 동정, 신제품 등 각 회원사들의 사내소식을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